# 전주동물원, 영화 · 방송 촬영지로 각광

## EBS 다큐멘터리 '극한직업' · 영화 '해치지 않아' · '미스터 주 : 사라진 VIP' 등 촬영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이 각종 영화와 방송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을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이후 영화와 방송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먼저 전주동물원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EBS 다큐멘터리 '극한직업'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촬영에서 '극한직업' 제작팀은 친환경 서식지로 탈바꿈한 생태동물원을 배경으로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사육팀과 진료팀의 동물돌봄 과정을 촬영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동물의 정형행동을 개선하기 위해동물행동풍부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된 새로운 호랑이 동물사의 모습이 중점 촬영됐다. 나아가 동물행동풍부화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전주동물원 사육팀의 동아리 활동 모습도 담겨졌다.

또한 동물을 소재로 한 영화촬영도 잇따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개봉된 '해치지 않아'와 '미스터 주 : 사라진 VIP'도 전주동물원에서 촬영됐다. 해치지 않아의 경우 동물원에서 직접 동물 탈을 쓰고 동물 연기를 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로 영화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줬다. 또 '미스터 주 : 사라진 VIP'는 동물의 목소리가 들리는 국정원 직원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이들 영화에는 시가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하는 배경을 간접적으로 담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세계적인 케이팝(K-pop) 스타인 방탄소년단(BTS)이 러브유어셀프(Love Yourself)의 뮤직비디오를 전주동물원의 회전목마를 배경으로 촬영키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KBS 투데이 전북 △KBS 오늘밤 김제동 △JTV 현장스토리 판 등 다양한 방송이 전주동물원을 배경으로 방영됐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스라소니사인 '맹수의 숲'과 망토원숭이사도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방문이 늘고 촬영장소로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이 각종 영화와 방송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이번 3월 촬영한 EBS 극한직업 전주동물원 편은 오는 18일 밤 10시 45분에 방송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지방정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

## 30일까지 명칭 · 담고 싶은 주제정원 제안 접수

전주시가 아중호수와 호동골 양묘장 권역을 전주를 대표하는 지방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시는 전주 지방정원 기본구상 용역과 발맞춰 지방정원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반영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30일까지 추진한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양묘장과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아중호수 일대 약 30만㎡에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아중호수와 연계한 생태교량을 설치해 전주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전주시 지방정원의 명칭과 지방정원에 담고 싶은 주제를 16일부터 30일까지 제안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chjy222@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지역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4월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며 수상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타 공모전 수상작 혹은 유사한 작품,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힐링과 체험, 관광, 교육 등이 담긴 공간으로 구상해 호동골 양묘장과 아중호수 권역을 전주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주 지방정원 기본구상 용역과 발맞춰 지방정원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반영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30일까지 추진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착한 소비' · '착한 소독' 운동 동참

## 코로나19 극복 위한 상생 간담회서 실천 캠페인 진행키로

전주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소비' 운동과 '착한 소독'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김승수 시장과 박주종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포함한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먼저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 사회복지 기관별로 지역소상공인들과 결연을 체결해 소비 촉진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불을 지피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하는 전 시민 일제 소독운동에 적극 동참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려울 때 함께 살아가는 전주형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실천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덕진공원에 '야호 맘껏숲' · '맘껏하우스' 조성

## 전주시, 12억7000만원 투입해 어린이 · 청소년 위한 복합 놀이공간으로 9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인 덕진공원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총사업비 12억7000만원을 투입해 덕진공원 내 구 수영장 부지, 약 4680㎡(1415평) 부지에 놀이 · 학습 · 체험 · 휴식할 수 있는 '야호 맘껏숲'과 '맘껏하우스' 조성공사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접근성을 높인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는 '야호 맘껏숲'은 미래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자, 다양한 놀이와 학습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대표적으로 다이나믹한 놀이가 가능한 대규모의 지형공간과 함께 △무지개다리 △다목적마당 △은행나무플랫폼 △슬라이딩 가벽 △물덤벙 등 다양한 연령층의 체험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맘껏 하우스'는 '야호 맘껏숲'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놀이와 문화, 편의시설을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영유아와 부모가 좀더 편안한 가운데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꾸며진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해 10월중 개장할 예정이며, 개장 후에는 현장에 놀이활동가 등 관리 인력을 배치해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놀이 본능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8년 2월 '덕진공원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유니세프,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체결했으며 이후 10회의 아동참여놀이 워크숍과 5회의 협약기관 업무협의 등을 진행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아이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다"며 "도심 곳곳에서 '야호'를 외치며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친화공간인 '야호 맘껏숲'과 '맘껏 하우스'가 아동의 놀 권리를 온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완산구선관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 지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성실)는 '코오롱스카이타워 아파트 제3기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온라인 투표를 지원한다.

온라인투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을 승인하면 PC, 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종 당내경선, 아파트 동 대표 선거, 학교 학생회장 선거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접근성이 쉬운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 제고로 당선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경비 절감과 투표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개표가 가능하기에 정책 결정 및 의견 수렴에도 효과적이다.

이진석 완산구선관위 선거계장은 "앞으로도 관내 학교 선거 및 아파트 선거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25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이 있으므로 이용 예정 기관·단체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